

尹 “영수회담서 많이 듣겠다”…李 “민심 가감 없이 전달”

어제 준비만남 취소… 윤 “신임 정무수석이 체계적 준비” 민주당 “일방적 취소 통보·다음 일정도 미정에 유감 표명”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을 위한 22일 양측의 준비 만남이 취소됐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은 ‘체계적인 준비’를 이유로 들었고, 민주당은 “대통령실 측의 일방적 통보로 취소됐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 임명을 발표한 언론 브리핑에서 후임 국무총리 인선과 관련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면서 “지난 금요일(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용산 초청을 제안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주고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진석 비서실장에 이어 정무수석을 같은 날 우선 임명할 대 대해서는 “정무수석을 더 빨리 임명해 신임 수석이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 대표와 회담을 신임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중심으로 준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를 두고, 민주당 권혁기 대표실 정무기획실장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오늘 오후 3시 천준호 비서실장과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준비 회동이 예정돼 있었다”며 “그런데 오늘 정진석 비서실장 임명 후 천준호 실장계 정무수석이 연락해와서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수석급 교체 예정이라는 이유”라고 말했다. 권 실장은 “총선 민심을 만드는 중요한 회담을 준비하는 회동인데, 준비 회동을 미숙하게 처리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다음 회동 일정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과 민주당 간 준비 회동이 무산됐지만 현 정부들어 첫 진행되는 영수회담에 대한 정치권 안팎의 관심은 여전히 뜨거웠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있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회담 의제에 대해 “아무래도 제가 이재명 대표를 용산으로 초청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초청했다기보다 이 대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보려고 해서 용산 초청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여야가 그동안 입장을 보면 좀 많이, 극명하게 차이가 났다”며 “그렇지만 일단 좀 서로 의견을 좁힐 수 있고 합의할 수 있는 민생 의제들을 좀 찾아서 국민의 민생 안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몇 가지라도 좀 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서로 하게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듣기 위해서 초청을 한 것이 어떤 의제 제한을 굳이 두지 않고 다양하게 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며 “국민께서는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라’고 준엄하게 명령하셨다.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주저해서도 안 된다”며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고유가 등에 따른 민생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기업 황제세 도입을 거듭 제안했다.

이 대표는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지난해 유동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황제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정진석 비서실장 소개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서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리얼미터,尹 지지율 32.3%…2022년 10월 이후 최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재작년 10월 이후 최저치인 32.3%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15~1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0%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2.3%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일주일 전 조사보다 오차범위 내인 0.3%포인트(p) 떨어졌다. 2022년 10월 1주차(32.0%)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부정 평가는 0.7%p 오른 64.3%, ‘잘 모름’은 3.4%였다.

권역별 긍정 평가는 대구·경북(8.7%p ↓), 대전·세종·충청(3.0%p ↓)에서 내렸고, 광주·전라(4.6%p ↑), 부산·울산·경남(1.8%p ↑)에서 올랐다.

연령대별로 60대(5.2%p ↓), 20대(3.1%p ↓)에서 하락, 30대(3.9%p ↑), 50대(2.6%p ↑)에서 상승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4.9%p ↓)에서 내리고, 진보층(3.5%p ↑)에서 올랐다.

지난 18~19일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 오차 ±3.1%p)에서는 국민의힘이 35.8%, 더불어민주당이 35.0%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일주일 전 조사 대비 2.2%p 상승했고, 민주당은 2.0%p 하락했다.

조국혁신당은 14.4%, 개혁신당 4.8%, 새로운미래 2.2%, 진보당 1.1%, 기타 정당 1.5% 등을 기록했다. 무당층은 5.2%였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3.0%였다. 정당 지지도 및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3.1%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한동훈,尹과 미묘한 거리두기…‘마이웨이’ 모색하나

오찬 회동 제의 건강 이유 거절 당분간 정치적 충전기 가질 듯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미묘한 거리를 둔 채 정치적 마이웨이를 모색하고 있다는 해석이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 소속 인사들에게 22일 오찬 회동을 하자고 제안했으나 한 전 위원장이 건강상 이유를 들어 이를 완곡하게 거절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한 전 위원장은 전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지난 금요일(19일) 오후 월요일(22일) 오찬이 가능한지를 묻는 대통령 비서실장의 연락을 받고 지금은 건강상 이유로 참석하기 어렵다고 정중히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이 거절 의사를 밝히면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 인사들의 오찬 회동은 당분간 성사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 전 위원장이 이번 오찬 제안에 응하지 않은 것을 두고 총선 기간 나타났던 윤 대통령과의 아슬아슬한 관계가 다시금 드러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전 위원장은 이번 총선 과정에서 여러 현안을 두고 대통령실과 다른 목소리를 내었다. 그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이종섭 전 호주대사 임명,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 거취 등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 등을 앞세워 대통령실의 태도 변화를 요구한 바 있다.

한 전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국민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 국민뿐.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라고 적었다.

최근 ‘윤 대통령을 배신했다’는 취지로 자신

을 비판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겨냥해 반박하는 형식이었지만, 총선 과정에서 대통령실을 압박할 때 언급했던 ‘국민’을 강조한 점이 눈에 띈다.

당내에서는 한 전 위원장이 용산과 당분간 거리를 둔 채 정치적 충전기를 가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병민 전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나와 “선거 내내 그렇게 썩 유기적인(당정) 관계는 아니었다고 본다”며 “(갈등) 얘기들이 최대한 나오지 않을 정도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한 전 위원장) 대통령과 만나야 보수가 더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규제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